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요한 복음사도 신학자

- 십자가 현양 축일 다음 주일
성 에프스타티오스 대순교자
제 6조, 조과복음 4
조과에서 십자가 현양 카타바시아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 6조 부활찬양송 / 82, A 216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십자가 현양 축일 찬양송 / 191, B 221
 - 순교자 찬양송 / 84, B 265
 - 성당 찬양송
 - 십자가 현양 축일 시기송 / 191, B 223
 - 사도경 : 갈라디아 2:16~20 / 196, 봉독서 295
 - 복음경 : 마르코 8:34~9:1 / 197, B 96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성 요한 복음사도 신학자

네 번째 복음서, 묵시록 그리고 3개의 서신을 신약성서에 남긴 요한 복음사도를 우리 교회에서는 9월 26일 축일로 기념합니다. 이 네 번째 복음사가는 교회에서 신학자라는 호칭으로 불리었고, 특히 사랑의 복음사가라는 명칭을 가졌습니다. 요한 복음사가는 모든 사도들과 복음사가들보다 더 많이 사랑에 대해 - 사람들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에 대한 사람들의 사랑 그리고 사람들 간의 사랑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이고 가장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서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13:35)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한 복음사도는 매 번 설교에서 사랑에 대해 항상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오늘날 세상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요한 복음사도의 사랑에 대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새 삶의 용기

어떤 사람이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였다. 그 사람은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몸도 안 좋은 상태에 있었다. 그 사람은 본인의 소개를 먼저하고 본인이 처한 현재의 상태를 말하였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과거의 잘못으로 인한 많은 죄로 인해서 고통스럽다는 것이었다. 그의 고통을 가증시키는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그의 남동생이었다. 그의 남동생은 술만 마시면 전화를 해서 형의 지난 잘못을 책하고 원망하며 몹시 비난하고 그 자신도 그로 인해 희생되었다고 하며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형은 뒤늦게 그의 잘못을 깨닫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 교회를 다니며 신학 공부도 하고 믿음으로 마음을 잡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던 중이었다. 하지만 과거의 죄로 인한 고통은 계속되었고 언제나 그의 발목을 잡고 놔주지를 않았다. 과거의 고통은 현재 진행 중이었고 더욱더 그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

과거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다. 현재의 삶에 굴곡이 있듯이 지난 삶에도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있기 마련이다.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과거가 아름답게 떠오르고 한 번쯤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은 과거를 생각하기 싫어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경우를 보게 되면 ‘과거는 과거일 뿐 현실에 충실하라.’고 한

결같이 충고한다. 당연히 맞는 충고이지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시시때때로 문득 떠오르는 과거의 아픔은 괴로움을 다시 불러 생각나게 하고 심하면 현재와 미래의 삶을 포기하도록 만들어 버리기도 한다. 특히 감성적이고 이상적인 사람들이 더욱더 과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우리 주변에는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당당하지 못하고 의기소침해져서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뜻을 펼치지 못해 고통 받고 사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다. 그중에는 스스로의 잘못도 있지만, 본인과는 관계없이 상처를 입는 사람들도 있다. 타의든 자의든 좋지 않은 과거의 기억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괴롭히곤 한다.

이런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겸손 밖에 없는 것 같다. 자신을 더욱 낮추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마음을 비우고 살려고 노력한다면 주님께서 자신이 짊어지고 갈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라 믿는다.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믿음의 자세는 하느님의 뜻대로 삶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내 뜻대로, 생각대로 앞서 나아가면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사람과 같이 아직도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자신이 짊어지고 갈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알렉산드로스 한의중 신부



어린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이처럼 ‘순진하며 순수한’ 것과 어린애같이 ‘유치하고 자기중심적이며 미성숙한’ 것은 다릅니다. 비록 어른이라 하더라도 전자에 속할 수도 있고, 또는 후자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마르코 10:14-1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받기를 바라시는 어린이의 특징과 성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를테면:

1. 어린이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래서 다른 이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2. 어린이는 지위나 직책, 직함 등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른보다 편견이 덜합니다.
3. 어린이는 자기의 감정에 솔직합니다. 자기의 느낌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때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4. 어린이는 호기심이 많아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며 계속 배우고, 성장해 가면서 새로운 경험에 열광합니다.
5. 어린이는 어른보다도 더 쉽게 다른 사람을 신뢰합니다.
6. 어린이는 선천적으로 즐겁고, 놀이를 좋아합니다.
7. 어린이는 원한을 품지 않으며, 거리낌이 없고, 남을 기꺼이 도우려고 합니다.

우리(어른들)는 때때로 신앙을 지적으로 생각하고, 이치를 들어 설명하며, 합리성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린이는 분석하지 않고 느끼며, 지적인 이해가 없이도 감지합니다.(아마도 직관으로?)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맺는 매일매일의 관계이며,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것임을 어린이들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타나시아

주보소식

대교구

➡ 세례와 결혼 성사를 축하합니다

지난 9월 12일 토요일에 그리스인 스텔리오스 플라이니티오스 교우의 라트비아인 아내와 세 아이들이 세례성사를 통해 빅토리아, 니키타스, 엘레프테리아, 소피아 세례명으로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지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정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길 기원합니다. 또한 스텔리오스 교우와 빅토리아 교우는 결혼성사를 통해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축복으로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결합이 영예롭게 빛나게 하시며, 이들의 생활을 흠 없이 보전하시고 이들이 순결한 마음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장수를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 추석 예배 안내

오는 10월 1일(목)에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교회에서는 추도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는 성찬예배와 추도식이 거행됩니다.) 신자분들께서는 풀리바를 준비하셔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시간은 각 지역성당에 문의해주시요.(코로나19로 상황에 따라 추도식 예배 참여 가능성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 한국정교회 24인 수호성인 축일

올해 10월 3일 토요일에 있을 한국정교회 24인 수호성인 축일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해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에서 모여서 드리지 않고 각 지역성당에서 축일 성찬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 교회묘지 관리비 납부 안내

추석을 맞이하여 용미리 교회 묘지의 벌초 작업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올해 교회묘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의 계좌로 꼭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묘지 관리비는 100,000원입니다.

우리은행 077-041887-01-103 / 예금주 : 한국정교회유지재단

